

참 관 기

아·태지역 GMPCS 전문가 회의(APSCC Regional Experts Meeting on GMPCS)

서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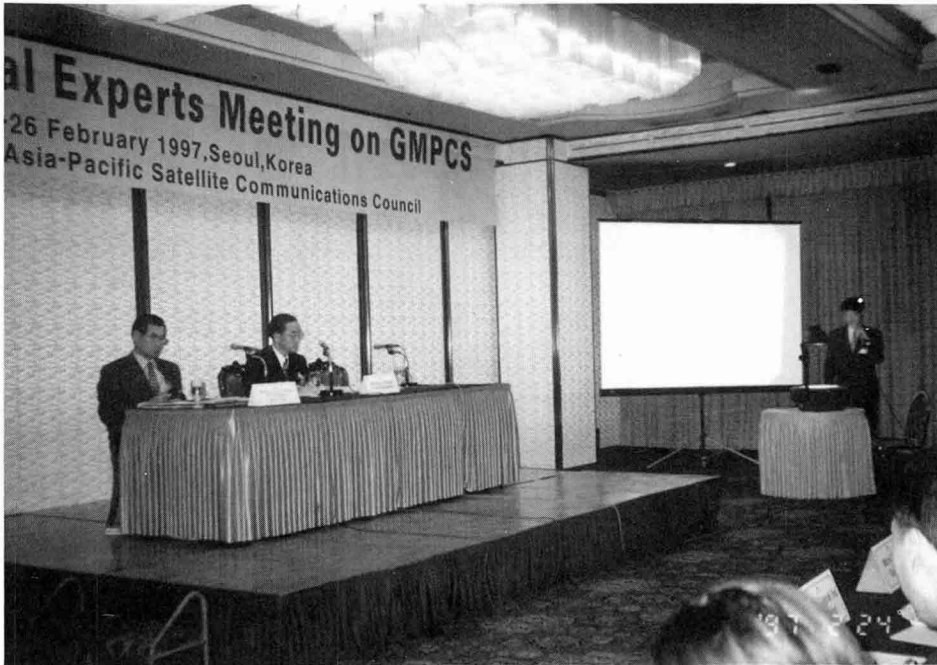
APSCC

I. 서 론

아·태위성통신협의회(APSCC)가 주최한 아·태지역 GMPCS전문가 회의가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에서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에서 범세계휴대위성통신(GMPCS)의 도입에 있어서 제기되는 정책과 규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고려를 위한 전문가회의로 기존 셀룰라 이동통신과의 연동, 선택성 이원 프로토콜 제시 및 터





미널의 국경간 자유유통 등 선·후진국을 막론한 범세계적인 기술, 제작, 요금 체계의 고려를 위한 회의였다. 즉 GMPCS 시스템과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공중이동전화망(Public Land Mobile Network, PLMN) 등 기존 네트워크간 연동가능성 및 과금, 신호체계, 단말기 기술기준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태위성통신협회의회는 이를 위해 Globalstar, Iridium, ICO, Odyssey 등 주요 GMPCS 컨소시엄 업체를 비롯하여 각국의 투자회사들에 APSCC의 회의 개최 목적과 개요를 공식 통보하고, 국내의 GMPCS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한국통신, 데이콤, 이리듐 코리아, 현대전자, 금호텔레콤, ICO 코리아를 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안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을 한 초안을 Draft Report로 준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회의 첫째 날은 개회식과 더불어 우선 Globalstar 등 주요 GMPCS 컨소시엄의 시스템 기술 설명회로 각각

의 시스템 및 단말기의 주요 특성 및 서비스 특징에 대한 소개와 질문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타 시스템과의 차이 및 장단점 등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이 많았다.

회의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Working Group 활동을 통해 GMPCS와 PSTN 또는 PLMN과의 연동 가능성 및 GMPCS 시스템 상호간의 연동 가능성을 터미널 이용자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토의는 연동 체계의 일반적 기능, 신호 체계, 번호 체계, 안테나 타입, 과금 및 정산 체계, 고장 진단 및 유지 보수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스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또는 적용을 제안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하도록 이루어졌다. 여기서 도출된 의견들은 보고서 준비위원회에 넘겨져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회의 마지막 날은 전날 토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안을 심의 결정하는 총회가 열렸다. 최종보고서의 주요 항목들은 물론 표현 방법 및 문구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대표나

GMPCS 컨소시엄의 대표자들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No. 7 신호운용에 개도국에서 쓰고 있는 R1, R2 신호 방식을 추가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GMPCS 휴대단말기의 전원용량을 대기상태 24시간, 통화상태 1시간으로 제안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과금에 있어서 위성접속 시간(air time)은 GMPCS 운영사가, PSTN망 이용료는 PSTN을 관할하는 각국의 통신주관청이 각각 책임을 지는 한편 향후 GMPCS 운영사가 모든 요금을 통합 일관 고지, 수금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간 요금 차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정산소(clearing office)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단말기 제작은 선진국의 특허 독점으로 인한 기술 종속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진국에서도 제작 가능한 기술 기본 사양을 전수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각각의 시스템과 국가간의 용어 통일 문제는 로밍(roaming)에서 다루는 HLR(Home Location Register)와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의 용어 삭제와 “gateway”, “earth station”, “SAN” 등

의 용어 통일 문제에서 상반된 의견의 개진되어 격론을 벌인 가운데 각각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상호인정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GMPCS 단말기를 아럼짚織だG 문화적 특성과 각국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견고하고 소형화하는 한편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말기 키보드의 기호 또는 문자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결과는 100여장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정리 완성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을 비롯한 GMPCS 관련 정부 및 기관의 정책 결정과 시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국내 GMPCS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회의 준비 단계와 시스템 제안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여건과 현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절충된 기술 제원 및 기준의 제안 채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아·태지역 회의는 다른 지역에 앞서 개최된 회의로서 이후의 관련 회의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